조선후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가사육종』을 중심으로*

이상원**

‖ 차 례 ‖

1. 서론
2.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의『가사육종』원본 가능성
3.『가사육종』에 수록된 가사의 양상과 특징
4. 필사시기 추정 및 전사본(轉寫本)에 대한 검토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가사육종』의 원본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조선후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가사육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사본(轉寫本)만 알려져 있었을 뿐 원본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고금가곡』의 원본 발굴을 계기로 이와 함께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옥루연가』라는 제목의 필사본 가사집이『가사육종』의 원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자료를 입수하여 1928년 마에마 교사쿠(田間恭作, 1868~1942)가 작성한 해제를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이것이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1869~1943)가 소장했던『가사육종』의 원본임을 알게 되었다.

『가사육종』에는 여섯 편의 가사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3차에 걸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1차로 필사된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는 사대부가 창작한 장편의 음영가사이고, 2차로 필사된 <춘면곡>·<강촌별곡>·<어부사>는 원래는 사대부가사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9-327-A00399).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으나 18세기 이후 서울의 가창공간에서 인기리에 불린 가창가사의 대표곡들이며, 마지막 3차로 필사된 <노인가>는 서울의 유흥공간에서 중간계층에 의해 생성된 작품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필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사대부의 이상적 담론에서 중간계층의 현실적 담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가사육종, 가사집, 강촌별곡, 노인가, 농가월령가, 마에마 교사쿠(田間恭作), 박창화, 손진태, 신선가,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어부사, 옥루연가, 전사본, 춘면곡

1. 서론

이 연구는『가사육종(歌詞六種)』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가사집의 유통사적 맥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고전시가를 대표하는 장르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가사가 지닌 장르적 속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자료 정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역대가사문학전집』이 완간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가사 연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는 개별 작품별로 해체하여 자료를 정리한 데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후기에 실제 유통된 가사집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요 가사집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집의 생성과 유통에 관계된 여러 동인들을 분석하며, 나아가 조선후기 문화 현상의 일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가사육종』이라는 텍스트에 주목하고자 한다.『가사육종』은 일인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 1869~1943)가 소장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사집이다. 참고로 아사미가

수집하여 소장했던 책의 목록을 살펴보면 『가사육종』이 얼마나 중요한 가사집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가사육종』과 더불어 아사미가 소장했던 책들은 『가곡원류』, 『남훈태평가』, 『송강가사』, 『고금가곡』, 『여창가요록』 등이다. 이 중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는 19세기를 대표하는 가곡창 가집과 시조창 가집이다. 다음으로 『고금가곡』과 『여창가요록』은 특색이 돋보이는 가집이다. 『고금가곡』은 가집사에서 유례가 드문 주제별 분류 가집이며, 『여창가요록』은 여창가곡만을 별도로 수록한 가집이다. 이들 시조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가집들과 함께 가사집으로 포함된 것이 『송강가사』와 『가사육종』이다. 주지하다시피 『송강가사』는 가사 문학의 1인자 송강 정철의 가사를 묶은 가사집이다. 이들과 함께 『가사육종』을 소장했다는 것은 이 가사집이 조선후기(19세기)에 널리 생성·유통된 가사집 중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것으로 그가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사육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사미가 소장하고 있던 이 가사집은 이후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 동양문고에는 이 가사집의 원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소재가 불명인 상태다. 그런 가운데 1928년에 전사한 2종이 현재 전하고 있다. 하나는 마에마 교사쿠(田間恭作, 1868~1942)가 전사한 것으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며,[1] 또 하나는 남창 손진태(1900~?)가 전사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 전사본들이 원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전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다음 기록을 보도록 하자.

가사육종(歌詞六種) : 가사집(歌詞集). 국한문혼용, 42장으로 되어 있으며

1) 필자는 연세대학교 윤덕진 교수님께 부탁하여 이 전사본의 사본을 얻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윤덕진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원본(原本)에 표제(表題)가 없어서 『가사육종』이라 가칭하였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옥루연가(玉樓宴歌>, <강촌별곡(江村別曲)>, <노인가(老人歌)>, <어부사(漁父詞)>, <춘면곡(春眠曲)> 등 6종의 가사와 **작자미상의 노래 41편이 수록되었다.** 일본인 아사미(淺見倫太郎)가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대학 가람문고에도 39장이 소장되어 있다.[2]

문원각에서 펴낸 사전에는 6종의 가사 외에 작자미상의 노래 41편이 수록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전사본에는 6종의 가사 외에 추가 수록된 작품은 전혀 없어 사전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전의 내용이 오류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전사 과정에서 원본을 충실히 전사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생략했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2.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 『옥루연가』의 『가사육종』 원본 가능성

최근 권순회는 일본 궁내청(宮內廳) 서릉부(書陵部)에 소장된 『가사유취(歌詞類聚)』라는 제목의 필사본 가집이 아사미가 소장했던 『고금가곡(古今歌曲)』의 원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3] 이 『고금가곡』의 원본이 포함된 6종 7책[4]의 마이크로필름본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 소장되어 있다.[5] 그런데 이 6종의 자료 중 『옥루연가(玉樓宴歌)』라

---

2) 『韓國文學大事典』(문원각, 1973), 696면. 비교적 오래된 이 사전을 인용한 것은 이것이 『가사육종』을 정리한 거의 유일한 사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사육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한 것이다.

3) 권순회, 「『고금가곡』의 원본 발굴과 전사 경로」, 『우리어문연구』 34집(우리어문학회, 2009).

4) 韓國印璽(1책), 高麗假名譜(1책), 醫方活套(3권 1책), 歌詞類聚(1책), 玉樓宴歌(1책), 壺隱集(6권 2책).

는 제목의 가사집이 있는데 이것이 곧 『가사육종』의 원본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것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28년에 마에마 교사쿠(田間恭作, 1868~1942)가 작성한 해제[6]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이 해제는 마에마가 전사한 동양문고본의 권말과 손진태가 전사한 남창문고본의 권두에 실려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여기서는 손진태 전사본에 실려 있는 것을 보기로 한다.[7]

> 이 책은 조선시대의 것치고는 소형(小型)에 속한다. 장정은 사성(寫成)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치고는 꼼꼼히 만들어져 있다. 다만 본문의 용지는 전부 붓글씨로 깨끗이 베껴 쓴 낡은 것을 사용하였고, 이것을 앞뒤를 뒤집어서 썼다. **장수는 51장으로 마지막 9장은 공백이다.** 필적은 달필이지만, 그다지 정성들이지는 않았다. 오자 등은 극히 드물지만 카나즈카이에는 종종 재미있는 부분이 보인다. 맨 앞에는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를 필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춘면곡> 이하 통상의 가요 3종을 덧붙여 베낀 것이고, 제일 마지막의 <노인가>는 후년에 다시 첨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옥루연가>는 등장하는 군제 등으로 추정하여 건륭(乾隆, 1736~1795) 후반기의 작품임이 확실하고, <월령가>는 권농윤음(勸農綸音), 향약(鄕約), 환상(還上) 탕감(蕩減) 등의 것으로 보아 조금 뒤인 건륭 말년의 것이고, 마지막 <노인가>는 가경 연간(嘉慶年間, 1796~1820)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
> 이 책은 일반적인 성곡집(聲曲集)과 달리 가사를 작가의 뜻대로 써내려가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소위 요미모노[8]에 속하는 장편을 수록한 것을 특징

5) 이 마이크로필름본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서 2004년에 촬영한 것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5년에 입수한 것이다.

6) 마에마가 전사한 동양문고본 『坡平尹氏家手錄 無名寫本 歌詞六種』의 해제 뒤에 "昭和戊辰四月望日抄謄畢."이라 적혀 있어 이 해제가 1928년 4월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7) 손진태는 1928년 2월에 『가사육종』을 전사한 뒤 4월에 마에마로부터 해제를 전달받아 합철하였다. 마에마의 해제가 적힌 종이는 본문 전사에 사용된 것과 확연히 다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 읽을거리. 흥미 위주의 소설, 기사.

으로 한다. <월령가>는 일반 민중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풍속, 습관의 기록으로서 뛰어난 귀중한 문헌이라 할 수 있겠고, <노인가>에도 또한 당시의 세태를 회고하는 부분이 드물게 나타난다. 첫머리의 <옥루연가> 또한 일견 허황되어 보이는 조선 후기 정치의 조직사회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소위 사대부의 소신과 이상을 나타낸 빼놓을 수 없는 저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필사시기를 알 수 있는 실마리로서 표지의 뒷장 반고지(反古紙)-사용되는 문서의 시대는 장정과 대략 일치하는 것이 보통으로, 2~3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은 드물다-에 적힌 조문장(弔問狀) 몇 장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윤씨가(尹氏家)에 보내는 것이다. 그 한 장은 조운철(趙雲澈)의 글로 을유년(도광 5년, 1825년) 3월 8일이라 쓰여 있다.

조운철은 호가 금화(錦華), 본관은 풍양, 소론의 명문으로, 사촌 동생 운경(雲卿)-호는 하상(荷裳)-과 함께 문명(文名)이 높았다. 건륭 57년(1792년) 임자생으로, 도광 을유년(1825년)에 진사가 되었고, 도광 갑오년(1834년)에 식년시에 등제하였으며, 후에 벼슬이 충청감사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책의 필사자는 소론 파평 윤씨 일문의 사람으로 필사는 도광 연중(1821~1850),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가사의 저술로부터 가깝게는 1~20년 멀게는 4~50년 후-임을 알 수 있다.

쇼와 무진년(1928년)에 교사쿠가 기록함.[9]

---

9) 本は朝鮮本としては寧ろ小型に屬せり. 裝禎は寫成のときになされたいと覺しく割合入念に仕立てあり. 但本文の用紙は全部習字淸書の及古を用い、 之（これ）を裏返へし認めたり. 丁數は五十一張にして內末九張は空白なり. 筆迹は達筆なれとも、あまり丁寧にあらず. 誤字等は極めて稀なるも仮名遣には往々面白からさるものを見る. 最初は玉樓宴歌と農家月令歌を抄寫したるものにて、後に 春眠曲以下通行の歌謠三種を附寫し最末の老人歌は後年に再び追筆添加したるものと 認めらる.

玉樓宴歌は所載軍制等あり推定し乾隆下半の作にかると明かに、月令歌は勸農綸音鄕約還上蕩減なとのことあり考えるに之れあり少く遲れたる乾隆末年のものなるべし、最後の老人歌また嘉慶年間の作と判せらる.

此書は通行の聲曲集と異り、歌詞の作意行文を主眼とする所謂讀み 物に屬すへき長編を收めたることにその特長を見る。その月令歌は 一般民人の生活狀態を詳かに寫し出したるものにて風俗習慣の記錄として類なき貴重なる文獻というへ

이 기록을 바탕으로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가사육종』의 장수가 51장이고 마지막 9장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옥루연가> : 15장(29면)
<농가월령가> : 18장(36면)
<춘면곡> : 2장(4면)
<강촌별곡> : 2장(4면)
<어부사 구장> : 1장(2면)
<노인가> : 3.5장(7면)
<신선가> : 4.5장(9면)
공백 : 5장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의 작품 수록 상황을 정리해 보았더니 총 51장이고, 이 중 작품을 적은 것이 46장이며, 공백으로 남겨진 것이 5장이었다. 이는 앞의 해제에서 밝힌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유는 <신선가> 때문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필사된 <신선가>는 앞의 작품들과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이는 이 작품이 나중에 추록되었을 가

く、老人歌にもまた當時の世態を顧るへきもの若干あり. 初頭の玉樓宴歌もまた一見荒誕なるか 如くして鮮朝後半に於ける政治の組織社會の制度を背景とし所謂士大夫なるもの、所信と理想とを語る見遁し難き述作の一ないというを得るなり.

此書抄成の年時を知るへき手掛りとして表紙の裏張反古(用いなる文書の時代は裝禎と畧一致するを常とし二三十年の間隔あるものも 稀なり)に弔問狀數葉ありて、いつれも尹氏家に宛てたるものなり. その一葉は趙雲澈の手書にて乙酉(道光五年)三月初八日と署せり.

趙雲澈,號錦華,貫豊壤,少論の名門,從弟雲卿號荷裳と共に文名あり、 乾隆五十七年壬子生,道光乙酉に進士,同甲午に式年試登第,後官忠淸監司に 至る.

よりて此書の筆寫者は少論坡平尹氏一門の人にて抄謄は道光年中,今より約一百年前(所收歌詞の撰述より、近きは一二十年遠きは四五十年後) にありと 知らる.

昭和戊辰恭作記.

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신선가>만 다른 작품과 달리 짝수 면에서 필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신선가>를 제외한 여섯 작품은 모두 홀수 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농가월령가>의 경우 <옥루연가>가 29면에서 끝나고 30면이 온전히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백으로 남겨두고 31면에서 필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작품의 경우 장을 달리하여 적는 것이 이 책의 필사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선가>의 경우 앞의 <노인가>가 83면에서 끝났는데 84면에서 바로 필사를 시작했다. 이는 <신선가>가 이 책의 필사 원칙을 숙지하지 못한, 후대의 다른 필사자가 추록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선가>를 후대의 추록으로 간주하면 이 책의 원래 모습은 <노인가>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선가>를 빼고 이 책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앞의『가사육종』해제와 일치함을 보게 된다. 여섯 작품이 실려 있는 점, 그 순서가 맨 앞에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가 오고 그 다음에 <춘면곡> 등 세 작품-즉 <춘면곡>, <강촌별곡>, <어부사 구장>-이 오며, 마지막으로 <노인가>가 배치되어 있는 점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총 51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공백으로 남겨진 부분이 9장이어서 "장수는 51장으로 마지막 9장은 공백이다."라는 해제의 설명과 완벽히 부합한다.[10]

사실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책이『가사육종』의 원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앞의 해제에서 마에마는 표지의 뒷장 반고지(反古紙)에 적힌 조문장을 근거로 필사시기를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책이 반고지에 필사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반고지는 글씨 따위를 써서 쓸 수 없게 된 종이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사집은 한문사본을 뜯어 그 속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궁내청 서릉부 소장

10) 이로써『한국문학대사전』(문원각, 1973)에서 42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공백은 제외하고 작품을 수록한 장만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작자미상의 노래 41편이 수록되었다"는 설명은 오류임이 밝혀졌다.

『옥루연가』는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본은 뒷장에 쓰인 한문 때문에 작품 판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다.

한편 손진태가 전사한 남창문고본의 <농가월령가> 부분을 보면 주석을 단 작은 메모지를 곳곳에 붙여 놓았는데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에도 이런 메모지가 붙어 있다. 이 또한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가『가사육종』원본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손진태는 원본을 충실히 전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석을 단 메모지까지 정성들여 적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궁내청 서릉부 소장『옥루연가』가 원래 아사미가 소장했던『가사육종』의 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사미가 소장하고 있던『가사육종』의 원본이 어떻게 해서 궁내청 서릉부로 가게 된 것일까? 아사미는 총독부 판사로 있으면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서울에 있는 미쯔이(三井) 물산을 통해 일본 미쯔이 문고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미쯔이 재단이 해체되면서 1950년 미쯔이 문고가 이 책들을 7천 5백 달러를 받고 미국 버클리대에 팔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가사육종』원본은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11]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사미 문고에는 없고 엉뚱하게도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언제 어떤 경로로 궁내청 서릉부에 들어간 것일까?

『가사육종』원본이 어떤 경로로 궁내청 서릉부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다만 이것이 궁내청 서릉부에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이 책이 궁내청 서릉부로 간 것은 1928년 이후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1928년 초 마에마와 손진태는 아사

11) UC버클리 아사미 문고에는 839종 4,013권의 한국 고서가 소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로부터 『가사육종』의 원본을 빌려 이를 전사하고 있기 때문이다.[12] 아사미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 대부분을 1920년 무렵 미쯔이 문고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사육종』의 경우 1928년까지 아사미가 소장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아사미가 자신이 수집한 자료 중 일부에 한해 미쯔이 문고에 넘기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리하여 미쯔이 문고로 넘어간 자료는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로 정리가 되었고, 미쯔이 문고로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자료는 궁내청 서릉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궁내청 서릉부로 옮겨간 시점은 1928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때로 보인다.

한편 원래의 『가사육종』에 없었던 <신선가>가 추록된 것은 이 책이 궁내청 서릉부로 옮겨진 이후의 일로 생각된다. 아사미가 소장하고 있을 당시에 추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28년 이후 궁내청 서릉부에 근무한 한국인이 이 <신선가>를 추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창화(朴昌和, 1889~1962)가 유력한 인물로 떠오른다. 박창화는 1928년 무렵부터 궁내청 용역 업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33년 12월에 궁내청 서릉부에서 조선전고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촉탁에 임명되었다. 『화랑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때 그는 궁내청 서릉부에서 접한 책들을 다량 필사한–또는 이 책들을 바탕으로 창작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선가>는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13] 내용은 도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술하고 선술(仙術)에 착념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 중에는 화랑 관련 언급도 잠시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박창화가 <신선가>를 추록했을

12) 남창문고본의 목차 뒤에 “一九二八, 二月, 得淺見倫太郎氏藏本而寫.”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13) “임진의 왜난 보고 병자의 호난 맛나”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임진왜란 전에 사망한 이지함이 창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박창화의 위작이 아닌가 한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추록 시기는 1933년에서 그가 귀국한 1942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3. 『가사육종』에 수록된 가사의 양상과 특징

『가사육종』에는 <옥루연가>, <농가월령가>, <춘면곡>, <강촌별곡>, <어부사>, <노인가> 등 여섯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마에마가 해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 작품은 세 단계로 나누어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1차로 필사된 것은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이다. 이 두 작품은 각각 15장과 18장으로 된 긴 분량의 사대부가사이다. <옥루연가>는 천상의 옥루경연에서 조선 국왕이 옥황상제를 독대하고 청나라 정벌에 대한 밀명을 받아온다는 내용으로 된 장편가사로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제후(帝侯), 장상(將相)을 비롯한 역대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고 온갖 전고가 사용되고 있어 "이해하기에 난삽함을 면할 수 없으나 고사숙어의 학습에는 일조가 될 만도 하다."[14]는 해설이 붙기도 하는 작품이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사대부사회에서 꽤 널리 유통된 작품으로 보인다. 우선 이 작품의 창작 시기와 관련 다음을 보도록 하자.

> 海東(히동) 一隅(일우) 朝鮮國(조션국)의 禮樂(예악) 文物(문믈) 彬彬(빈빈)ᄒᆞ다.
> 檀君(단군) 箕子(긔ᄌᆞ) 나린 德化(덕화) 小中華(소듕화) 되어셔라.
> 我太祖(아태조) 洪功偉烈(홍공위열) 三代(삼대) 以上(니상) 聖君(셩군)이라.
> 四百年(ᄉᆞ빅년) 宗社慶(종ᄉᆞ경)이 聖子神孫(셩ᄌᆞ신손) 繼繼(계계)ᄒᆞ셔
> 千年(쳔년) 黃河(황하) 一淸運(일쳥운)의 太平聖主(틱평셩쥬) 셔시거다.

14)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13 (아세아문화사, 2005), 242면.

……(중략)……
紫衣仙官(ᄌᆞ의션관) 다시 와셔 朝鮮國王(조션국왕) 블너드려
白玉樓(빅옥누)의 獨對(독디)ᄒᆞ샤 諄諄天命(슌슌텬명) 下敎(하교)ᄒᆞ되
寡人(과인)이 醇酒(슌쥬) 먹고 百餘年(빅여년)을 昏醉(혼취)ᄒᆞ니
大明日月(대명일월) 中原天地(듕원텬디) 腥塵世界(셩진셰계) 되엿더니
오날날 슐을 ᄭᆡ니 胡無百年(호무빅년) 運(운)이로다.

"四百年(ᄉᆞ빅년) 宗社慶(종ᄉᆞ경)"이라 하여 조선 건국 후 사백 년이 지난 시점임을, "胡無百年(호무빅년) 運(운)이로다."라고 하여 병자호란으로부터 백 년이 지난 시점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8세기 중·후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작품은 꽤 널리 유통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본들이 창출되었다.

옥누연가, 장서각 소장, 1책 27장
옥루연가, 동국대 도서관 소장, 1책 9장
율곡신가(옥루연가·도덕가·해주구곡담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책 30장
옥루연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책 16장
옥루연기,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1책 18장
옥루연기,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1책 21장
몽중가, 『악부』, 고려대학교 소장

『가사육종』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종의 이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도 <옥루연가>형·<옥루연기>형·<몽중가>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 작품이 널리 유통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용적으로 북벌론·소중화의식이 중심적 배경을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몽유록의 양식적 틀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공자, 맹자, 주자의 춘추대의 정신이 조선으로 이어

진 것이라는 소중화의식이 조선후기 서인 노론계 사대부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옥루연가>·<도덕가>·<해주구곡담가> 등을 하나로 묶어 『율곡신가』라 명명하고 있는 규장각본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농가월령가>는 헌종 때 정학유(鄭學游, 1786~1855)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월령체 장편가사로서 농가에서 행해진 월별 행사와 세시풍속을 제시하고 농업에 힘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 작품 또한 창작 이후 널리 유통되면서 여러 이본을 창출하고 있다. 『가사육종』에 수록된 것 외에 권경호본, 이탁본, 정규영본, 안춘근본, 『악부』(고대본) 소재본 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월여농가(月餘農歌)>란 제목으로 한역되기도 하였으며, 이 한문본 또한 여러 이본을 파생시켰다.[1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는 19세기 사회에서 꽤 널리 유통된 사대부가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사육종』의 필사자가 1차 필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라 하겠다.

다음 2차로 필사된 것은 <춘면곡>, <강촌별곡>, <어부사> 등 세 작품이다. 이들은 모두 가창가사이며, 그것도 사대부가 창작한 가창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춘면곡>은 강진 진사 이희징(李喜徵, 1647~?)이 창작한 것으로,[16] 남도의 강진 병영에서 불리던 이 노래는 18세기 서울의 가창공간에 진입한 후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가창가사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나아가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도에서도 이 곡이 불렸다고 한다.[17] 이를 반영

15) <월여농가>에 대해서는 "길진숙, 「중인 김형수의 <농가월령가> 한역과 그 의미-한역가 월여농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6집(동양고전학회, 1996)." 참조.

16) 이상주, 「<춘면곡>과 그 작자-『남유록』의 기록을 통해서」, 『우봉 정종봉 박사 회갑기념논문집』(세화, 1990).

17) <춘면곡>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제28집(한국시가학회, 2010)." 참조.

하듯 현재 11종 이상의 이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이본은 장형·중형·단형의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18]

<강촌별곡>은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에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 작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 역시 사대부가 창작한 가창가사라 할 수 있는데 18세기 이후 서울의 가창공간에 진입한 후 상당히 활발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초·중반 여항의 가창공간에서 가곡과 함께 불린 가창가사들을 수록하고 있는 『고금가곡(古今歌曲)』, 『청구영언(靑丘詠言, 가람본)』,[19] 『청구영언(靑丘永言, 육당본)』[20] 등의 가집과 『가사육종』, 『잡가(雜歌)』 등의 가사집에 두루 수록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상당히 복잡한 유통 맥락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이 작품은 『고금가곡』과 『가사육종』처럼 작가를 차천로로 밝히고 있는 텍스트가 있는가 하면 퇴계나 율곡을 작가로 기록한 텍스트도 있고 작가를 아예 밝히지 않은 텍스트도 있다. 조선후기 가창가사의 경우 작가성을 상실한 채 유통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춘면곡>의 경우 현재 전하는 모든 이본들에서 작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작가를 밝혔느냐 아니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작품의 경우 작가에 대한 기록 여부가 복잡한 유통 맥락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로 사대부의 풍류방을 중심으로 유통된 경우 『고금가곡』과 『가사육종』처럼 차천로 작으로 인식하고 수용하였다. 하지만 여항의 유흥공간에서 주로 중간계층들을 중심으로 유통된 경우에는 작가성을 상실한 채 향유된 것으로 보인다. 『청영』과 『청육』의 경우가 이를 반영

18)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어문연구회, 1995).
19) 이하 『청영』으로 약칭함. <낙빈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곧 <강촌별곡>의 이본이다.
20) 이하 『청육』으로 약칭함. <강촌별곡>과 <낙빈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정확히 어떤 계층이나 공간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작품을 퇴계나 율곡의 작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청육』의 <낙빈가>에 "退溪或云栗谷"[21]이라 한 것과 『잡가』의 <낙빈가> 후기에 "此栗谷先生之所製也."[22]라 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을 둘러싸고 이와 유사한 계열의 작품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착종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금가곡』과 『가사육종』은 공히 <강촌별곡>이라 하였고 작가를 차천로라고 표기하였으며 가사의 내용도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청영』과 『잡가』의 경우에는 <강촌별곡>은 실려 있지 않고 <낙빈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육』에는 <강촌별곡>과 <낙빈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강촌별곡>은 『고금가곡』과 『가사육종』에 수록된 <강촌별곡>과는 차이가 있으며,[23] 오히려 <낙빈가>가 훨씬 더 유사하다.[24] 이상의 사실에서 보듯이 <강촌별곡>은 이 명칭 외에도 <낙빈가>·<낙빈사>·<강촌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가사의 착종도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너무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재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계보를 파악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이는 당대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작품이 활발하게 유통

21) 『청구영언』(경성제국대학, 1930).

22) 『잡가』(영인본), 『열상고전연구』 제9집(열상고전연구회, 1996).

23) 그렇다고 하여 이 작품이 <강촌별곡>과 본질적으로 다른 작품인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잡가』의 <隱士歌>와 동일 작품이다.

24) <강촌별곡>과 <낙빈가>의 수록 현황에 대해서는 "강전섭, 「<낙빈가>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대왕사, 1982)." 및 "「<강촌별곡>에 대하여」(같은 책)." 참조. 그리고 작품 상호 간의 착종 현상에 대해서는 "성무경, 「가사의 가창 전승과 '착간' 현상」,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보고사, 2000)." 및 "성무경,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보고사, 2004)." 참조.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부사>는 고려말부터 전하던 12장의 장가 <어부가>를 농암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9장으로 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조선후기 들어 사대부의 풍류방과 중간계층의 유흥공간을 망라하여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25] 그리하여 가창가사를 수록한 가집과 각종 가사집에 상당히 많이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2차로 필사된 <춘면곡>, <강촌별곡>, <어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사대부가 창작한 가사로서, 18세기 이후 사대부 풍류방에서 광범위하게 불렸으며 이 과정에서 작가 · 제목 · 텍스트 층위에서 착종현상이 나타나는 공통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 착종 현상은 이 작품들이 조선후기 가창문화권을 관류하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면서 겪은 애호의 흔적"[26]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맨 마지막에 있는 <노인가>는 앞의 작품들과 필체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앞의 작품들에서는 한자어의 경우 그 옆-오른쪽 또는 왼쪽-에 한글음을 함께 적고 있는 데 비해 이 작품은 한글음을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앞의 1~2차를 필사한 사람이 아닌 다른 필사자가 첨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사자가 달라진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작품의 지향이 앞의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1차로 필사된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 2차로 필사된 <춘면곡>·<강촌별곡>·<어부사>의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도 존재하지만 작가가 사대부이고 담론 특성 또한 사대부담론을 지향

25) 조선후기 <어부사> 전승에 대해서는 "이상원, 「조선후기 <어부사> 전승 연구」,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보고사, 2004)." 및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소명출판, 2002)." 참조.

26) 성무경,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보고사, 2004), 156면.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이들 작품을 하나의 가사집으로 포괄할 수 있었던 근본 동인이다. 그런데 <노인가>의 경우 이들 작품과 지향하는 세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어제 날 靑春 젹의 업던 親舊 졀노 와셔
> 듀란화각 놉흔 집의 白玉盤 교ᄌᆞ상의
> 슐맛도 조커이와 안쥬도 ᄎᆞᆯᄂᆞᆫᄒᆞ다.
> ᄎᆞ례로 느러안져 ᄌᆞᆸ거니 권커니
> 몃 슌비 도라가니 풍월도 ᄒᆞ여 볼가?
> 일각인들 ᄲᅡ질소냐 뉘디 젓디 싱황 양금이며
> 五音六律 가진 풍뉴 次第로 노릐ᄒᆞᆯ 졔
> 각기 소쟝 불너니여
> ᄒᆞᆫ가ᄒᆞᆫ 處士歌ᄂᆞᆫ 낙민가로 和答ᄒᆞ고
> 다졍ᄒᆞᆫ 相思歌ᄂᆞᆫ 春眠曲 和答ᄒᆞ고
> 허탄ᄒᆞ다 漁父辭ᄂᆞᆫ 梅花曲 和答ᄒᆞ고
> 듯기 죠흔 길고낙은 권쥬가로 和答ᄒᆞ고
> 쳐량ᄒᆞ다 노고가ᄂᆞᆫ 화계타졍 화답ᄒᆞ고
> 괴망ᄒᆞᆫ 남힝 친구 화발ᄒᆞᆫ 무면 친구
> 용졸ᄒᆞᆫ 션비 친구 테셜 구진 활냥 친구
> 복식 죠흔 디젼 별감 눈치 만ᄒᆞᆫ 보도보쟝
> 쩨 만안 정원 ᄉᆞ령 슉긔 죠흔 나장이며
> 돈 ᄌᆞᆯ쓰ᄂᆞᆫ 션젼 시정 ᄆᆡ ᄌᆞᆯ치ᄂᆞᆫ 각ᄉᆞ ᄉᆞ령
> 픽가ᄌᆞ졔 난봉듈과 허랑ᄆᆡᆼ랑 무록ᄇᆡ
> 逐日相逢 교유ᄒᆞ니 늙ᄂᆞᆫ ᄌᆞᆯ 몰ᄂᆞᆫ고나.

<노인가>의 화자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요점만 간추리면 온갖 친구들을 만나 화려한 풍류를 즐겼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풍류마당에 등장하는 노래들을 보면 서울의 유흥공간에서 불리던 가창가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유흥공간에서 날마다 만나 유흥을 함께 즐긴

친구들을 보면 대전 별감, 포도부장, 정원 사령, 나장, 선전(縇廛) 시정(市井) 등 서울 중간계층이 핵심이다. 따라서 <노인가>는 19세기 서울 중간계층의 유흥 체험이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27] 이 점에서 이 작품은 앞의 다섯 작품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상 『가사육종』에 수록된 여섯 작품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섯 작품이 세 차례에 걸쳐 나뉘어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로 필사된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는 사대부가 창작한 장편의 음영가사이고, 2차로 필사된 <춘면곡>·<강촌별곡>·<어부사>는 원래는 사대부가사였으나 18세기 이후 서울의 가창공간에서 인기리에 불리는 가창가사로 전환된 곡들이며, 마지막 3차로 필사된 <노인가>는 서울의 유흥공간에서 중간계층에 의해 생성된 작품이다. 이로써 필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사대부의 이상적 담론에서 중간계층의 현실적 담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필사시기 추정 및 전사본(轉寫本)에 대한 검토

이제 『가사육종』의 필사시기를 대체적으로나마 추정해 보는 것과 이 원본을 베낀 20세기 전사본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남았다.

앞서 이 책은 총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필사되었다고 했다. 이 중 1차 필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1830년 전후로 추정된다. 마에마가 해제에서 밝힌

27) <노인가>는 인생이 덧없이 늙어가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늙음을 막을 수 없으니 젊었을 때 마음껏 먹고 쓰고 놀라고 하는 작품이다. 이런 보편적인 주제 의식으로 인해 이 작품은 매우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본을 파생시키고 있다. 서영숙은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을 네 유형-노인자탄형, 소년경계형, 노소대립형, 노인비판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역락, 2003).” 참조.

데 따르면 1825년 3월에 보낸 조문장을 뒤집어 쓴 것이므로 『가사육종』은 적어도 1825년 이후에 필사된 것이다. 그런데 마에마도 말한 것처럼 통상 반고지를 활용하여 필사하는 경우 2~3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은 드물다. 대체로 10년 이내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청구영언(靑丘永言)』(가람본, 약칭 『청가』)의 경우 한문사본의 필사 시기가 1801년인데 이를 뒤집어 시조 작품을 필사한 시기는 1805년으로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28] 이런 사실을 참조할 때 『가사육종』의 1차 필사 시기는 1830년경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2차 필사는 1차 필사 시기에서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필체에 큰 차이가 없어 동일인이 덧붙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차 필사는 2차 필사 이후 꽤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1850년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29] 결국 『가사육종』은 1830년~5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사육종』 전사본(轉寫本)으로 남창문고본, 동양문고본, 가람문고본 등 3종이 전하고 있다. 이 중 남창문고본과 동양문고본은 각각 손진태와 마에마가 아사미로부터 원본을 빌려 1928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사한 것이다. 반면에 가람문고본은 원본을 전사한 것이 아니고 남창문고본을 토대로 이병기가 전사한 것이다. 여기서는 남창문고본과 동양문고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28) 이에 대해서는 "이상원, 「『청구영언』(가람본)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고전과 해석』 제9집(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참조.

29) 3차 필사의 대상 작품인 <노인가>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노인자탄형 → 소년경계형 → 노소대립형 → 노인비판형으로 변주되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서영숙, 앞의 책.) 그런데 『가사육종』에 수록된 <노인가>는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노인자탄형에 속한다. 노소대립형에 속하는 <백발가>가 수록된 『초당문답가』가 19세기 후반의 산물로 알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인자탄형은 19세기 전반기 막바지에는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창문고본은 남창 손진태가 1928년 2월 아사미의 원본을 빌려 전사한 것이다. 표지에 “歌辭六種 全”이라 쓰여 있고, 내지에는 “歌辭六種(失名擬題)”라 쓰고 우측 아래에 “孫晋泰寫”라고 밝혀 놓았다. 다음 장은 앞서 검토한 마에마의 해제문이 실려 있는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중에 전달받아 합철한 것이다. 그 다음 장에 목차가 정리되어 있는데 그 끝 부분에 “一九二八, 二月, 得淺見倫太郎氏藏本而寫.”라고 적혀 있어 1928년 2월에 아사미 소장본을 빌려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장부터 작품을 싣고 있는데, 원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원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원본에서는 1면을 3단으로 나누어 필사하고 있는데, 남창문고본의 경우 1면을 2단으로 나누어 적고 있다. 또한 원본은 1면에 10행씩 배치하여 적고 있으나, 남창문고본에서는 1면에 12행씩 배치하여 적고 있다. 한자 어휘의 경우 원본에서는 좌우 여백을 활용하여 한글음을 병기하고 있는데, 남창문고본에서는 한자만 적고 한글음은 생략하였다.

동양문고본은 마에마가 1928년 4월에 전사한 것이다. 표지에 “坡平尹氏家手錄 無名寫本 歌詞六種”, “前間氏所藏”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동양문고에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써 붙인 것이다. 다음 장에는 여섯 작품의 제목이 순서대로 적혀 있으며, 그 다음 장부터 작품을 싣고 있다. 작품 수록 상태를 보면 동양문고본이 남창문고본보다 훨씬 원본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1면 3단, 10행은 물론이고 한자 어휘의 경우에도 원본과 마찬가지로 좌우 여백을 활용하여 한글음을 병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가>에서만 한글음을 병기하지 않은 것까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마에마는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전사본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30] 한편 여섯 작품을 모두 전사한 뒤에는 해제를 써서

30) 그런데 이런 마에마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양문고본은 결정적인 흠이 한

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가>를 일역한 것이 실려 있는데, 종이 형태가 앞의 것과 다른 것으로 보아 1928년 전사 당시에 번역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가사육종』이라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조선후기 가사의 유통이 가사집의 생성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사육종』에는 여섯 작품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 필사된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가사집 생성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사육종』의 편찬자가 1차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옥루연가>와 <농가월령가> 같은 장편의 사대부가사였다. 다음 2차로 필사한 것은 <춘면곡>·<강촌별곡>·<어부사> 등 세 작품인데, 이들은 일찍이 사대부가 창작한 가사로서 조선후기 서울의 가창공간에서 널리 불린 대표적 가창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 3차로 필사된 것은 <노인가>인데, 이 작품은 19세기 서울 중간계층의 유흥체험이 반영된 작품이다. 이상 3차에 걸친 필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대부의 이상적 담론에서 점점 중간계층의 현실적 담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연구의 주텍스트로 삼은 『가사육종』의 경우 그 동안 전사본만 알려져 있을 뿐 원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는데, 이번 연구 과정에

군데 있다. <농가월령가>의 마지막 면과 <춘면곡> 4면 중 3면이 원본과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농가월령가>의 마지막 면은 아예 빠져 있으며, <춘면곡>의 경우는 『가사육종』본과 다른 이본이 실려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이렇다. 동양문고에서 마에마의 전사본을 입수하였을 때 이 부분의 2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으며, 동양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에마의 다른 전사본에서 <춘면곡>을 복사하여 이 부분에 삽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서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된『옥루연가』라는 제목의 책이 원본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본과의 대비를 통해 손진태가 전사한 남창문고본과 마에마가 전사한 동양문고본을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남창문고본보다 동양문고본이 훨씬 더 원본에 충실한 전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歌曲歌詞』.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소장.

『歌詞類聚』.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본.

『歌辭六種』. 서울대학교 남창문고 소장.

『玉樓宴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본.

『잡가』(영인본). 『열상고전연구』 제9집. 열상고전연구회, 1996.

『靑丘永言』. 경성제국대학, 1930.

『靑丘詠言』.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소장.

『坡平尹氏家手錄 無名寫本 歌詞六種』. 일본 동양문고 소장.

2. 논저

강전섭. 「<강촌별곡>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 대왕사, 1982.

-----. 「<낙빈가>에 대하여」. 위의 책.

권순회. 「『고금가곡』의 원본 발굴과 전사 경로」.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2009.

길진숙. 「중인 김형수의 <농가월령가> 한역과 그 의미-한역가 월여농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6집. 동양고전학회, 1996.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회, 1995.

박애경. 「<춘면곡>을 통해 본 19세기 시정문화와 그 주변」. 『한국시가연구』 제28집. 한국시가학회, 2010.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성무경. 「가사의 가창 전승과 '착간' 현상」.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사, 2000.

-----. 「18~19세기 음악환경의 변화와 가사의 가창전승」. 『조선후기 시가문학의 문화담론 탐색』. 보고사, 2004.

윤덕진. 「19세기 가사집을 통해 본 가사 향유의 실상」. 『한국시가연구』 제13집. 한국시가학회, 2003.

이상원. 「조선후기 <어부사> 전승 연구」. 『조선시대 시가사의 구도와 시각』. 보고사, 2004.

_____. 「『청구영언』(가람본)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고전과 해석』 제9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0.
이상주. 「<춘면곡>과 그 작자-『남유록』의 기록을 통해서」. 『우봉 정종봉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세화, 1990.
이형대. 『한국 고전시가와 인물형상의 동아시아적 변전』. 소명출판, 2002.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13. 아세아문화사, 2005. 242면.
『韓國文學大事典』. 문원각, 1973. 696면.

The Circulation of Narrative Poems Called Gasa and the Creation of a Collection of Works of Gasa in the Late Joseon Era

-Focused on『Gasayukjong(가사육종)』-

Lee, sang-won

This study discovered and introduced the original version of『Gasayukjong(가사육종)』to academia and examined the circulation of Gasa, the narrative poem, and the creation of a collection of works of Gasa in the late Joseon era.

Until recently, only copies of『Gasayukjong(가사육종)』had been discovered without anything known about the whereabouts of the original version. Then the recent discovery of the original version of『Gogeumgagok(고금가곡)』led the researcher to think that a hand-written collection of works of Gasa titled『Okruyeonga(옥루연가)』housed at Seoreung division of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in Tokyo might be the original version of『Gasayukjong(가사육종)』. Therefore, the researcher acquired and examined related data with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written by Maema Gyosaku(1868~1942) in 1928 and identified『Okruyeonga(옥루연가)』owned by Asami Rintaro(1869~1943) as the original version of『Gasayukjong(가사육종)』.

『Gasayukjong(가사육종)』contains six narrative poems, which were handwritten through three rounds. In the first round, <Okruyeonga(옥루연가)> and <Nonggawollyeongga(농가월령가)>, long narrative poems for reciting created by literati called Sadaebu, were written by hand. In the second round, <Chunmyeongok(춘면곡)>, <Gangchonbyeolgok(강촌별곡)> and <Eobusa(어부사)> were written by hand. These works were initially enjoyed among Sadaebu but, after the 18th century, they became representative narrative poems for singing and gained popularity among people in Seoul. In the third round, <Noinga(노인가)> was handwritten. The poem was created by middle class people at adult entertainment places in Seoul. These six poems show that as the work to handwrite the poems progressed, the poems gradually

turned from ideal discourse for Sadaebu into practical discourse enjoyed by the middle class.

key-words : Asami Rintaro, Chunmyeongok, Eobusa, Gangchonbyeolgok, Gasayukjong, Maema Gyosaku, Noinga, Nonggawollyeongga, Okruyeonga

이상원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1-759)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전화번호 : 011-664-2855
전자우편 : sanje2@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1월 16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0년 11월 16일 게재 확정됨.